

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코로나19 극복 위해 1천만원 기부 연수구 내 취약계층에 방역용품 후원



인천LNG기지야경

한국가스공사(사장 채희봉) 인천LNG기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 연수구청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. 성금은 마스크, 손 세정제 등 방역용품 구매에 사용돼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



한국가스공사

인천LNG기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. 지난 2월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'심각'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지 내 대책 상황반을 구성했다.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을 시행 중이다.

이 밖에 감염 예방의 일환으로 외부인의 기지 내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. 근무자 다중시설 이용금지, 구내식당 부서별 분리 식사, 대면 식사 금지, 사무실 등 업무 공간에 대한 1일 2회 소독 등도 진행했다.

인천LNG기지 전 직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의 빠른 종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. ▼